

신품종 '삼개시호'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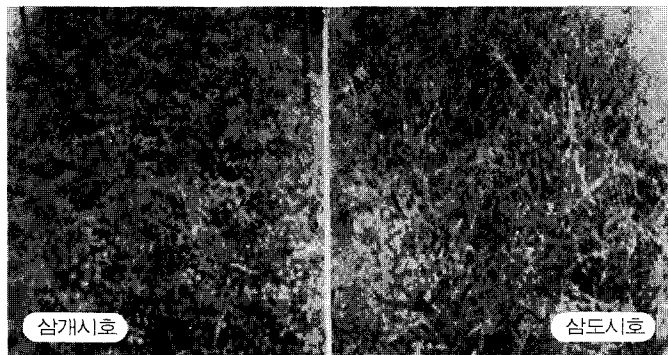
기존 삼도시호보다 뿌리수량 성분함량 높아

농진청 작물시험장

기존 '삼도시호'에 비해 뿌리수량과 성분함량이 높은 신품종 '삼개시호'가 육성됐다.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은 감기·해열등의 한약재로 쓰이는 시호의 주요 약리성분인 사이코사포닌 함량이 1.11%로 기존 품종보다 0.35% 포인트 많은 <삼개시호>를 육성했다.

<삼개시호>는 일본도입종인 삼도시호 집단으로부터 우수한 계통을 순계분리하여 육성한 품종. 기존 품종(삼도시호)에 비해 익을때가 15일정도 빠르고 10a(30평)당 뿌리 수확량이 11%가 많은 43.5kg으로 다수성 품종이다. 식물체 키가 삼



도시호 보다 19cm 작은 단간특성을 가지고 있어 도복에 강하며 탄저병·내한성·내습성에 대한 저항성도 강하다.

특히 재배적응성이 우수해 전국 평야지 어느 곳에서나 재배할 수 있지만 입모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종후 피복 및 제초작업을 해주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재배상 유의해야 할 점은

타화수정작물이므로 채종시에는 격리채종을 하여야 하며 다른 시호와 혼합하여 파종해서는 안된다.

작물시험장은 삼도시호보다 속기가 빠르고 사이코사포닌 함량이 높은 삼개시호를 일본수출용으로 국내 재배될 수 있도록 일본내 학회지 투고등 학문적 홍보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0331-290-6895>

재배기술상단

산수유 번식과 관리방법

Q 산수유를 재배하기 위해 종자를 구입해 파종했으나 발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산수유의 번식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산수유는 열매의 과육을 약으로 이용하는 중요한 약용작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산수유는 품질이 우수해 수출이 가장 많이 되는 한약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산수유는 주로 종자에 의한 실생번식을 합니다. 삼목과 접목으로도 번식이 가능하지만 발근이 잘 안되고 활착률이 낮아서 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자는 10월 하순~11월 상순에 잘익은 열매를 채취해 과육은 건조시켜 한약재로 이용하고 씨를 번식용으로 사용합니다. 산수유 종자의 종파에는 유세포가 형성돼 있어 껍질이 단단해 잘 발아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배가 다 자라지 않아 종자 상태에서 1년정도 더 자라야 발아를 하게 됩니다.

노천매장 방법은 종자를 수확한 후 11월경에 배수가 잘되는 양지쪽에 사방 1m폭에 30cm정도의 깊이로 움을 팝니다. 바닥에 5cm 정도 모래를 넣은 다

음 4cm두께로 종자를 넣고 다시 모래를 4m 넣는 방법으로 3층정도 넣고 위에 모래를 5cm정도 덮은 다음 벗짚등으로 덮어 줍니다. 노천 매장 기간은 1년정도 해야 껍질이 썩어 부드러워지고 발아가 되기 시작합니다. 파종은 노천 매장을 한 다음해 가을이나 그 다음해 봄에 하면 됩니다.

육묘포장은 물빠짐이 좋고 수분이 잘 유지되며 물주기가 편리한 곳이 좋습니다. 묘상에 직파할 때에는 잘 썩은 퇴비등을 많이 넣고 로터리한 다음 1주일 정도 두었다가 1.2~1.5m의 이랑을 만들어 흩어 뿌리거나 10~20cm 간격으로 깊이 3~4cm 정도의 가는 골을 파고 줄뿌림합니다.

복토는 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1.5~2cm 흩으로 복토합니다. 파종후 건조를 막기위해 짚을 피복하고 건조할 때에는 수시로 관수를 해줍니다. 발아는 다음해 4월 하순경에 시작해 땅위로 출현하므로 싹이 트면 피복물을 제거합니다. 일반적으로 묘상에서 2년정도 키워서 옮겨 심으나 생육이 좋은 묘는 1년생을 옮겨 심어도 가능합니다.

유흥섭(작물시험장 특용작물과 0331-290-0719)

배초향 수확적기 구명

꽃피기 10일전이 개화후보다 소득높아

한약재 배초향(곽향)의 수확적기가 구명됐다.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은 꽃피기 10일전에 배초향을 수확하면 천연항산화제인 로즈마린산과 정유함량이 많은 상품을 수확,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릴수 있다고 밝혔다.

배초향은 곱관·구토·종기 등을 치료할 때 약재로 이용되는데 특히 항산화 효과가 큰 배초향인으로는 노화방지 기능이 있는 녹차를 만들수 있고 식물체 전체에

많은 양의 정유가 함유되어 향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배초향 시종가격으로 수확시기별 소득을 분석한 결과 꽃피기 10일전에 수확할 경우 10a(300평)당 상품 180kg을 생산, 27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 개화후 25일에 중품 213kg을 따서 21만3천원을 얻는것보다 소득을 26.7% 높일 수 있다.

한편 수확시기별 수량과 성분함량을 보면 개화중기

가 10a당 213kg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화직전 180kg, 개화초기 178kg, 개화말기 162kg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로즈마린산 함량은 개화직전이 3.8%로 개화초기에서 말기의 0.5~1.6%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정유함량은 5.8%로 다른때의 2.1~4.3%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도표참조).

<특용작물과 유묘작물연구실 0331-290-6724>

<배초향 수량및 성분함량>

구분	특호	1호	2호	3호
수입원가	5,200	4,400	3,400	3,000
도매단가	8,000	6,000	5,000	4,500
소매단가	10,000	8,000	6,000	5,000

한약재 '황금' 파종적기 구명

전남도농업기술원 전작연구팀은 남부지역에서 보리 뒷그루로 재배하는 '황금'의 경우 폭 120cm로 두둑을 만든뒤 6월 초순에 30x10cm의 간격으로 10a(300평)당 2kg의 씨앗을 줄뿌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1때 밀거름으로 10a당 0kg을 투입하고 시비량은

질소 18kg, 인산 15kg, 칼리 15kg을 7:3의 비율로 밀거름과 웃거름으로 나눠 뿌리면 생육을 촉진시킬수 있다.

도농업기술원은 이같이 재배한 결과 10a당 마른 뿌리기준으로 93kg을 수확해 6월중순과 하순에 파종했을 때보다 수량이 15~30% 늘어났다. 또 거리를 적당히 유지해 20x10cm나 40x10cm의 간격으로 재배했을 때보다 뿌리의 자람성도 좋아져 품질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문의처:0613-330-2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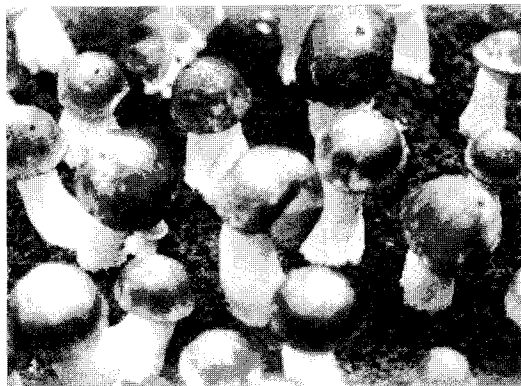
신령버섯 재배법 확립

농가재배기술및 과정 체계화

신령버섯(아가리쿠스)의 인공재배법이 확립됐다.

전남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는 개별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신령버섯의 재배기술 및 과정을 체계화시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재배방법을 보면 우선 잘게 자른 벗짚을 완전 발효시켜 수분함량 72%, 산도(PH) 7~8도로 조절한 뒤 60°C에서 6시간동안 살균처리해 배지를 만든다. 배지



를 7일간 후발효시킨 뒤 한 평당 25~35kg의 종균을 접종, 균사가 배양된 균상에 흙을 5cm의 두께로 완전히 덮어 버섯이 발생하면 10일 간격으로 4~5차례 수확한다.

이때 균상을 덮는 흙은 완전히 소독하고 수분함량

을 65%로 유지한다. 수확한 버섯은 세척후 바로 건조시켜 보관하는 것이 상품성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군농업기술센터는 이 방법으로 관내 한 농가에서 실증시험을 한 결과 균상 60평에서 150kg(마른무게)을 생산 관행재배의 80~120kg보다 30~70kg 증수됐다.

우호석 고흥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는 "암을 억제하는 등 약리작용 효과가 탁월한 신령버섯 수요는 계속 늘어가는 추세"라며 "느타리버섯 이어짓기 장애가 심한 재배사 등에서 대체작목으로 재배하면 이어짓기 피해를 줄이면서 소득을 높일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0666-835-3781>